

바다낚시 시설의 계획 (1)

김 남 형 / 제주대학교 교수

낚시는 대표적인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다. 그 참가 인구는 해수욕에 뒤이어 제2 위이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으로서 정착하고 있다.

최근 바다낚시에는 방파제나 호안 등을 이용하는 낚시꾼이 늘고 있다. 또 개방되지 않은 항만 시설(방파제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낚시꾼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성, 쾌적성을 갖춘 바다낚시 시설의 정비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배경에 입각해서 바다낚시 시설의 계획과 디자인을 고려하는데 포인트를 정리하였으며 수요동향, 전국의 정비상황, 계획 컨셉트, 입지조건과 적정지역 선정, 계획순서, 도입기능과 시설규모의 산정, 해역의 정비 방법, 디자인계획 및 관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해설하였다.

1. 바다낚시 시설의 개설

(1) 유어(遊漁)의 역사와 바다 낚시 시설 정비의 배경

일본에서는 바다가 일상생활의 속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생선을 먹는 습관이며 일상생활 혹은 음식문화를 말하는 데 바다나 생선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수산자원을 어획하여 소비시장에 공급하는 산업을 어업이라고 부르지만 물고기 낚는 것을 놀이로서 받아들여 예전부터 '유어(遊漁)', 최근에는 '게임·피싱(fishing)'이라고 불리는 역사 있는 놀이의 하나로서 대중화되고 있다. 또 앞바다 낚시, 해안에서의 바다 낚시, 물가 낚시, 모래사장 낚시, 넷가의

낚시 등 낚시를 즐기는 장소에 따라 명칭이나 즐기는 방법이 달라지지만 이러한 여가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산업도 성장해 오고 있다.

문헌 등을 보면 제법 오래전부터 '유어'라고 하는 여가 활동이 존재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낚시꾼의 속칭인 강태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주(周) 시대의 제나라 시조. 처음 위수의 모래사장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세상을 피하고 있었지만 문왕에게 등용되어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토벌해서 천하를 평정했다. 이 고사에서 받아들여 예전부터 '유어(遊漁)', 최근에는 '게임·피싱(fishing)'이라고 불리는 역사 있는 놀이의 하나로서 대중화되고 있다. 또 앞바다 낚시, 해안에서의 바다 낚시, 물가 낚시, 모래사장 낚시, 넷가의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유어'라는 말은 일본 Neiji시대의 어업법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어패류를 잡아 생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가로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그 후 현대에 이르는 동안 유어는 하나의 여가로서 확립되었으며 어장이용조정시설정비지침책정조사보고서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되어 있다. '과거 놀이나 취미로서 물고기를 낚는 것은 사람들의 사소한 여가로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수준이 향상함과 동시에 여가시간이 증대하여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여기에 수반되는 유어는 가장 손쉬운 여가 활동의 하나로서 자연과의 접촉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각되어 참가율이 높은 종목으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현재는 약 2천만명이나 되는 애호가들이 낚시터를 찾아 물가로 진입하게 되었지만 한편, 여러 가지 트러블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방파제 등의 출입금지 구역에서 낚시꾼이 늘

어나 전락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 양식어장 등 어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수역에서 낚시를 하므로써 어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트러블의 발생을 계기로 놀이로서의 해역이용에 관한 법의 제정이나 시설설치의 요청이 높아져 '바다낚시 공원'이 전국 각지에서 정비되게 되었다.

사업화의 제도가 확립된 것은 1973년이며 제2차 연안어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특정지역등 진흥대책사업 실시요항' (농림 사무차관 통달 73년)이 발표되고 나서 부터다. 일본 최초의 바다낚시 공원은 Kobe시 Suma '바다낚시공원' (사업연도 : 1971년~76년)이지만 1975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시설 정비가 진행되었다. 현재 그 시설 수는 비교적 대규모의 시설만 약 60군데에 달하고 있다.

(2) 여가 활동으로서 낚시의 위치

낚시는 여가 활동 가운데 참가율이 높은 종목으로서 자리잡았으며 스포츠부분 27종목 중 제5위에 랭크되었고 15세 이상의 참가 인구는 약 1,90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인기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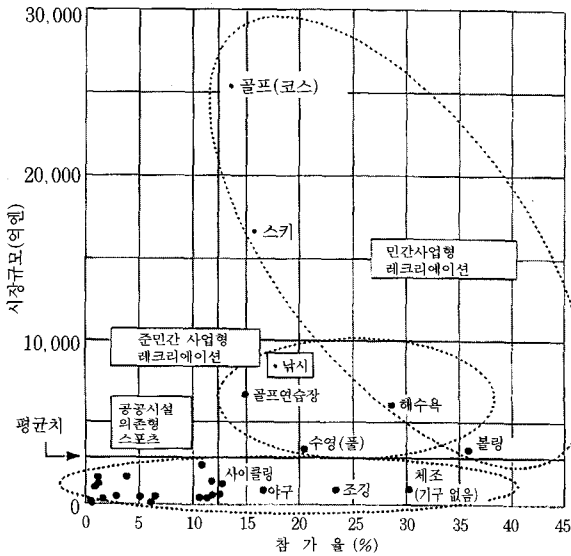
는 활동이다.

참가 인구 추정값과 연간 소비 금액을 곱한 것을 그 종목의 시장규모로 설정하는 경우에 낚시의 시장규모는 8,400억엔/년이 되고 골프나 스키에 이어 제3위에 위치한다. 대중적으로 애호가들이 많아 하나의 사업으로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낚시는 현재 참가율이 17.9%로 비교적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참가 희망률도 22.3%로 높아서 성장종목으로서 기대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낚시의 '참가율과 시장 규모(참가인구×연간 평균 비용)'를 지표로 하여 사업성을 검토했다.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보면 낚시는 골프 연습장, 수영(풀), 해수욕장과 유사한 경향을 가지며, 민간레벨에서 부분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레크리에이션 종목(준민간 사업형)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수욕과 같이 활동영역의 정비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정도의 높은 수익성은 없으므로 당분간은 공공 섹터에 의한 시설정비가 필요한 종목으로서 여겨진다.

또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그림 1〉 스포츠형 여가활동에서 사업성의 분류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① 민간사업형 레크리에이션
참가 인구가 대단히 많다 혹은 시장규모가 현저하게 높다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에 의한 사업화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용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관련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쉽다.

② 준민간 사업형 레크리에이션
참가 인구가 많은 종목이라서 회원제나 레슨 등의 부가가치를 높일 경우 민간사업자에 의한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1회당 소비단가가 그다지 높지 않기

대중적인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은 이런 유형에 속한다.

③ 공공시설 의존형 스포츠
앞의 두 가지와 비교해 참가 인구가 비교적 적은 혹은 시장규모가 높지 않은 종목이며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에는 요트, 서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애호자를 타겟으로 한 전문적인 종목이 많아서 레크리에이션이나 레저로서보다도 스포츠로서의 위치가 강하다.

시설의 정비 주체는 공공섹터가 대부분이다.

(3) 수요 동향과 참가자 속성
낚시의 참가인구를 시계열적으로 보면 최근 15년 동안에 경기 변동이나 유행 등에 좌우

때문에 짐객성과 회전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시설 정비 비용을 공공섹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낚시를 포함해서 되는 일 없이 1,800만명 전후로 안정되어 있다. 특히 1991년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국민 레저는 '싸다·가깝다·즐겁다'라는 경향이 강해지고 리조트 지향에서 야외 지향으로 전환되어 낚시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인기를 얻어 최근에는 참가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참가자의 속성으로서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10여년 사이에 여성의 참가, 특히 20대~30대 여성의 참가율 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남성의 특징으로서는 세대간의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30대~40대의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태공형이 속성의 중심이었지만 여기에 패밀리 참가형이 더해져서 이분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변화의 선도로서 생각하고 시설 계획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과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2. 바다낚시 시설의 정비 현황

(1) 바다낚시 시설의 분포 현황
바다낚시 시설은 '안전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낚시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시민수요를 반영해서 전국 59군데(1993년 현재)에 정비, 운영되고 있다.

분포상황을 보면 Tokyo만이나 Osaka만, Seto내해 등의 도시 임해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 비교적 서일본 지역이 충실하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Aichi의 Nagoya항이나 Hokkaido의 Monbetsu항에서 방파제를 활용한 낚시시설이 오픈되었으며 공공 섹터 정비에 의한 바다낚시 시설수가 착실하게 늘고 있다. 특히 Monbetsu의 사례에는 유빙(流水) 전망탑이라는 문화시설(연구시설)과 일체화가 도모되어 새로운 유형의 바다낚시 시설로서 주목되고 있다.

(2) 바다낚시 시설의 이용 현황

바다낚시 시설은 지역을 위한 손쉬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그 이용자는 지역 주민이 주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용자권역으로서 시설이 입지 하고 있는 지방(시·읍·면)이 중심이 되기 쉽다.

연간 이용자수가 많은 시설은 Kobe시의 Suma 바다낚시공원이나 'Nagoya항 바다낚시 시설'이 약 20만명/년이

라는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어서 Yokohama항이나 Osaka 남항의 시설에서 10만명 전후의 이용자가 되고 있다.

또한 월별 이용자 수의 경향을 보면 5월과 8월 전후의 두 시기에 피크를 맞는 듯한 경향이 각 시설에서 보인다.

(3) 바다낚시 시설의 집객력
Kobe시나 Nagoya시의 바다낚시 시설은 권역인구에 비해 집객력이 높지만 기타의 시설에서는 약간 집객력이 부족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집객력이 높은 바다낚시 시설은 이용 요금이 저렴한 점, 시설의 기능성이나 교통진입이 우수한 점, 판매 음식 부문이나 렌탈부문이 충실하다는 점 등 하드 및 소프트 양면에서 이용자의 여러 가지 욕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집객력이 여의치 않은 시설은 물고기가 그다지 잡히지 않는 점, 진입조건이 나쁜 점, 비위생적인 점 등 어떤 요인이 이용자에게 매력을 끌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지관리에 최저 필요한 비용 마련을 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대도시를 배후에 끼고 있는 경우에는 10만명 이

상의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있는 시설을 정비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3. 계획의 사고방식

(1) 입지조건에 의한 시설 정비의 방침

바다낚시 시설은 그 입지조건에 따라 정비목적, 유치권역과 집객력, 제공 서비스, 기대되는 효과 등이 서로 다른 것이 많다. 입지분류로서는 '도시 입지형' 혹은 '지방 입지형'에 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다낚시 시설의 정비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유형의 특징을 충분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은 정비목적이다. 도시 입지형은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제공(부차적으로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방지한다)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방 입지형은 관광이나 어업 등의 산업진흥이라는 목적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라는 성격보다도 관광 레저 시설로서의 위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필연적으로 시설의 PR, 부가가치의 도입방법, 요금체계라는 사업성이나 정비효과 등에 목적을 둔 정비 방침의 결정이 중요하다.

또 시설 정비는 어느 쪽의 유형이라도 공공 섹터가 주체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초기 비용과 요금과의 관계에서 민간 사업자가 참가하기 어려운 점, 해양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 법적 제약 조건이 엄격한 점 등이 주요 이유이다.

(2) 정비방침 결정의 포인트
 바다낚시 시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비주체나 입지 환경에 따라 정비목적 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정비 방침은 사업목적에 맞게 대응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개 아래에 나타내는 방향성으로 집약된다. 전자는 일상적 대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후자는 관광지 놀이 시설로서의 성격부여이다.

- ① 도시의 워터프론트에 입지하여 일상적인 여가활동으로서의 낚시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창출하는 것.
- ② 자연이 풍부한 어촌 등의 연안 공간에 입지해서 낚시를 매개로 지역 사람들과 접촉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산업에 활력을 주는 장소로서 공헌하는 것.

또 낚시의 참가자 속성이 강태공형 중심이면서도 패밀리형

의 참가가 증가하여 앞으로는 이들이 마켓 리더로서 성장한다고 전술했는데 정비 방침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계획지에서의 이용자 속성을 충분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도시 근교에서의 일상적 레저형으로는 강태공형도 패밀리형도 이용대상자로 취급할 수 있지만 관광지 놀이형으로는 패밀리형을 주요 이용대상자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도입되는 기능에 약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입지 조건

(1) 사례로 보는 입지조건

바다낚시 시설의 정비사례를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낚시 전용 잔교로서 정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만 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안전측면 등에서 개량을 실시한 후 낚시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적지선정의 자유도는 낚시전용 잔교형 쪽이 항만시설 활용형보다 높아 낚시에 조건이 좋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바다낚시 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항만시설 개량형 쪽이 낚시전용 잔교형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다.

입지조건과 경제성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는 중요하지만 그 판단은 어렵고 시설 정비의 뜻이나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주체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적지 선정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계획지점이 양호한 낚시포인트이고 시설 정비 후에도 지금까지 더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해상조건이나 지원시설의 정비조건에 대한 비중도 커서 안전성의 확보나 편의성의 향상에 관계되는 사항이 중요시되고 있다.

(2) 적지선정의 포인트

바다낚시 시설의 계획지 선정결과는 시설 집객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설 계획상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된다. 이들 레저 시설에서는 기능적인 충족성은 물론이지만 건설기술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적 요소에 관한 잠재성(어획성, 경관성, 심미성 등)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5. 시설계획

(1) 계획순서

바다낚시 시설의 계획은 <그

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낚시수요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수요 예측 외에 이용자가 어떠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내방자의 양적 및 질적인 잠재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한 목표로 하는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본계획의 단계에서는 이용자의 쾌적성이나 편의성 등 도입가능에 관한 검토 이외에 생물의 위집성을 높이는 해역 이용 계획, 황천시의 안전 관리 대책이나 사고 등의 미연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2) 이용자의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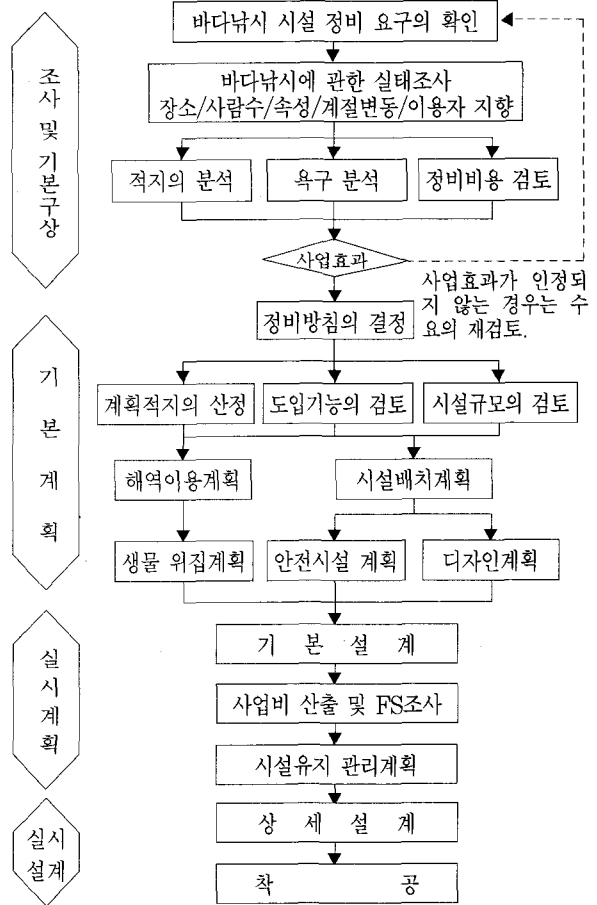
현재 정비되고 있는 바다낚시 시설에서는 관리상의 문제로 이용규제가 많아서 충족감은 얻어져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웃도어 지향이 정착되고 있는 현재 이용자 욕구로서는 '천연의 물고기를 낚아서 그 자리에서 조리해 먹고 동료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다만 잡아서 놓아주는 낚시는 제외한다)이지만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다낚시 시설은 매우 적은 것이 현상이다. 앞으로 정비되는 바다낚시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의식 향상을 계몽하면서 이용자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 만들기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도입가능

바다낚시 시설은 시설 정비의 목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시설이 약간 달라진다. 정비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낚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고, 다른



〈그림 2〉 바다낚시 시설의 계획 순서

하나를 각종 서비스의 제공에 역점을 둔 것이다. 전자를 공간 제공형, 후자를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하면 낚시터나 주차장, 안전 및 관리 시설 등의 기본기능은 양자의 공통사항이 되지만 매점이나 음식시설, 휴식시설, 전망시설, 축양시설 등은 서비스 제공형의 특징이 된다. ㉠